

“민간 투자 예정지 기반시설 먼저 설치해야”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여수 묘도에 조단위 투자 추진
전남도, 선제적 기반시설 필요

전남도내 민간 투자 유치가 가시화된
지역에 대해 전담도가 선제적으로 기반시
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다. 민간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기반시
설의 효율을 높여 또다른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1조3850억원이
투입돼 해양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여수 경
도에 이어 조단위의 민간투자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여수 묘도다. 지리적인 여건, 주
변 산업과의 연계성, 미래 가치 등을 감안
해 묘도를 대규모 LNG(액화천연가스) 탱
크와 항만을 조성, 중국-일본 등과의 LNG
무역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남 LNG 동북
아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
고 있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인 (주)한양은 지난 7월
LNG 탱크 4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8월 상세설계에 착수, 11월말 산업통상
자원부에 공사계획 승인을 접수할 예정이
다. 올해 내 산업부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국내 다수의 국내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를 비롯한 해외 가스공급사, 트레이딩 기
업들이 LNG의 저장 및 재충전(reload-
ing) 등 터미널 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

한양은 국내외 LNG 관련 기업들을 대
상으로 수요처, 투자처 확보에 적극 나서
는 한편 2020년 4월 단계별 착공을 시작으
로, 2023년 9월 LNG 저장탱크 2기의 상
업운전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 1조3000
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6년까지 4조원을
투자한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LNG의 안
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물론 인프라 산업 집중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민
간사업자와 전남도의 전망이다. 또 기존
석탄원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함에
따라 광양만권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LNG를 활용한 수소의 대량생산 가
능성도 열어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LNG 연료를 직접 확
보하면서 연료비 감소를 통해 전력요금인
상 억제라는 부수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
다.

여수 묘도 역시 경도의 연륙교 설치와
마찬가지로 민간 투자에 앞서 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한양의 주장이다.
묘도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서
LNG 허브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적 위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섬을 돌
러싼 항로, 전기, 용수 공급 등의 인프라 구
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
프라가 또다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12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
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
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
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오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
경쟁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9년 12월 12일 (12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SC제일은행빌딩 9층)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맨 뒷장에 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십시오.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취소됩니다.
 - 결봉부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0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12월 말께 개최합니다.

光州日報社

영호남 상생 '문화·화합의 꽃' 활짝 피었다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대구시 상화동산서 3일간 열려
광주·대구·전남·경북
단체장·주요 인사들 참석
문화교류 행사 등 다채



광주일보사와 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이 지난 25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김여송 광주일보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 잇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매일신문·우태욱 기자woo@imaeil.com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이 지난 25일부터
대구시 상화동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여송 광주
일보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사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
시장, 서은수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 장
경식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도기운 농협경
북지역본부장, 박하원 전남본부 경제본부부
장 등 영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여송 사장은 축사에서 "이 시대의 최
대 화두는 국민화합이며 지금 우리 국가의
사정으로 미뤄 진보·보수 양 진영이 국가
의 앞날을 위해 크게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영·호남 주민화합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상택 사장은 "요즘
우리나라는 어렵고 분열돼있다. 분열과 같
은 정치권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통
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민간

에서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화합해야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는 뜻깊고 중
요한 행사"라고 말했다.

"영·호남 화합과 통합! 영·호남 한마음
손잡고"를 주제로 열린 행사장 홍보관엔
호남 22개·영남 29개 등 모두 51개의 농수
축산품 부스가 설치됐고 지역 특산품을 구

입하려는 참가자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고산농약보존회의 김늘이
등 영·호남 문화예술공연, 레크리에이션
한마당, 농특산물 깜짝 경매 SHOW, 청소
년 공연 등 영호남 상생발전을 다지는 다
양한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서울 소재 대학 정시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문 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
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
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
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
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어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 입
학전형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
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
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
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태양광 발전사업 부문 1위 기업

최고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십시오!

- ★ 개발행위허가 / 발전사업허가 완료
- ★ 한국전력 선로 확보 완료
- ★ 금융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 ★ 우수한 일조량(전남 신안군 일대)
- ★ 자연풍에 의한 여름철 온도 제어
- ★ 홉 잘 안 쌓이는 겨울 환경
- ★ 주변 가림이 적은 지형조건

상업운전 중!

- ◆ 적용 시스템
 - ★ 모듈 캐나다안솔라 385wp 단결정
 - ★ 인버터 카코 100kW급
 - ★ 알루미늄 구조물
 -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 상업 운전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 ◆ 99kW (2억4천5백만원/기)
- ◆ 450kW (10억5천만원/기)
- ◆ 499kW (11억5천만원/기)
- ※ VAT 별도

파트너사 **광주은행**

대출 최대 80% 가능
※ 차주 소득 금액 및 담보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 조정

SUN友

(주)선우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www.solar-sunwoo.com

방문 및 현장답사 환영

T. 031-831-9795
H. 010-4596-3982